

임실군청 사격선수단 관심·지원 '만전'

파리올림픽 사격銀 김예지 선수, 건강 회복...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전해 심민 군수 "선수단 건강·처우개선 더 신경쓸 것"... 숙소 이전·보수 등 추진



김예지

임실군이 월드스타로 급부상한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선수를 비롯한 임실군청 소속 사격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13일 심민 군수는 임실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얼마 전 기자회견 도중 쓰러진 김예지 선수가 다행스럽게도 빠르게 회복되어 안정을 찾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김 선수의 건강관리는 물론 감독과 다른 선수들에 대한 건강과 처우개선 등 지원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임실군청 사격팀 감독인 박민수 감독에 따르면 지난 9일 임실군에 소재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갑자기 쓰러진 김 선수는 전주 대자병원에서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어 퇴원 후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복한 김 선수는 심민 군수에게 휴대용 문자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심민 군수는 13일 임실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얼마 전 기자회견 도중 쓰러진 김예지 선수가 다행스럽게도 빠르게 회복되어 안정을 찾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김 선수의 건강관리는 물론 감독과 다른 선수들에 대한 건강과 처우개선 등 지원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 선수는 "걱정 많이 하셨죠? 심려를 끼쳐드렸네요.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아주 좋아요.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실제 심 군수는 김 선수가 쓰러진 날, 곧바로 직접 병원을 찾아 의료를 통해 선수 상태를 직접 챙기고, 같은 날 저녁에도 병원을 방문하여 선수의 퇴원까지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회복한 김 선수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이제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고 들었습니다. 이번엔 여러분께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남은 시합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며 훈련 복귀 및 대회출전의 의지를 전했다.

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김 선수를 포함한 4명의 임실군청 소속 사격팀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체력 강화 및 건강, 처우개선 등에 각별히 신경 쓸 방침이다.

김예지 선수 외에도 임실군청 사격팀 소속 선수들은 이전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우수한 선수진이다.

심 군수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사격부 등 직장은동계기부 운영규정이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데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당 등 보수와 처우개선에 지금보다 더 신경써서 세계 최고의 선수단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군은 올해부터 선수 장려금 보상 규정을 올림픽의 경우 금메달은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은메달은 200만원에서 1,000만원, 동메달은 1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도자 역시 국제대회의 경우 선수 장려금 수준을 고려해 상향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선수단 숙소 이전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선수단이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 숙소도 8년 정도 사용한 곳이지만, 내년 하반기쯤에는 임실 읍내에 새로 준공되는 아파트로 옮겨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쓸 방침이다.

임실군이 워터 운영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에 대한 시설현대화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심 군수는 "건강물이 30년 이상 노후됨에 따라 대회 때 누수가 발생하는 등 사격장·관리동 등 시설물 전반 개보수 필요성이 크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건의와 관심 유도를 통해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 군수는 김 선수에 대한 공향 환경 인사를 간 자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진종오 국회의원을 만나, 사격장·관리동 등의 개보수에 15억원, 신형 표적관리시스템 도입에 15억원, 클레이사격장 증설 및 안전 펜스 보강에 50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김 선수는 "다음에는 더 큰 노력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 드리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사격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예지 선수는 미국 NBC가 뽑은 2024 파리올림픽 10대 화제성 스타에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려 관심을 모았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

남원소방서는 119구급대 이용 시 구급대원의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을 적극 홍보했다.

이 이송병원 선정은 환자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는 119구급대원이 태블릿PC를 통해 환자의 초기평가(심정지 및 무호흡, 의식장애 여부 등) 후 주 증상별 카테고리별 선택, 사고기종, 통중부위, 동반증상, 활력징후 등 1·2차 고려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시스템이며, 시스템을 통해 응급환자의 주 증상을 초기평가해 의료기관에 해당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신속하게 수용가능한 병원을 선정할 수 있다.

병원소방서는 이 과정에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구급대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의 판단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누적 방문객 41만명... 강천힐링스파, 순창 새 랜드마크로

순창군의 강천힐링스파가 개장 이후 꾸준한 인기를 누리며 지역의 대표 관광지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년 4월 문을 연 이 시설은 개장 2년여 만에 누적 방문객 41만명을 돌파하며 순창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실제로, 개장 첫해인 2022년에는 15만여명이, 작년에는 16만6,000여명이 방문했으며, 8월 현재 9만7,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강천힐링스파는 팔덕면에 위치한 2,904.57㎡ 규모의 복합 휴양시설로, 치유누리실, 도반목실, 족욕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야외온천, 족욕장, 동굴형 체력관, 강천음용수 취



수장 등이 있는 온천정원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강천 힐링스파의 핵심 시설인 1층 치유누리실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원한 스파와 풀장, 개강담 넘치는 노천탕,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사우나실 등 다양한 시설이 한곳에 모여 있

어 무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의 여류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아울러, 개장 이후 현재까지 총 12억 7,000만원이 넘는 수입이 발생했으며, 나아가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매출 상승, 지역 특산물 판매 증가,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강천 힐링스파의 인기 비결은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합리적인 가격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지난 12일 남원시 청사 앞에서 최경식 시장과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ED 디스플레이 '3D 영상' 시연식을 개최했다. (사진=남원시청 제공)

3D 미디어아트 실감 영상 콘텐츠, 남원서 볼수 있다

남원시, 대형 LED 디스플레이 '3D 영상' 시연식

남원시가 청사 앞 경비실 건물 외벽에 시민 및 방문객에게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알리기 위한 대형 LED 디스플레이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12일 청사 앞에서 최경식 시장과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ED 디스플레이 '3D 영상' 시연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시설한 디스플레이는 가로 10m*2m, 세로 5m 크기의 곡면형 전광판으로 남원시가 시청홍보를 위해 관내에 설치한 전광판 중 최대규모와 최고 화질을 자랑하며, 특히 시청 앞 LED 디스플레이는 정복 최초로 시민에게 단순히 정보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도시에서만 향유 할 수 있는 3D 미디어아트 실감 영상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또 주변 조도 변화에 따른 최적의 화면 밝기 제공과, 육의 환경을 고려해 빛 공해 방지 최소화 및 방수·방진 기능 등을 포함 설치했다.

남원시 홍보전산과 홍보선 과장은 "청사 앞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청 방문객에게 시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정보와 불거리를 제공, 남원시가 추구하는 '문화와 미래산업 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전달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추경 1조1030억 편성... 시의회 제출

기정예산 대비 5.6% 늘어... 사회적 약자 보호·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등에 편성

남원시(시장 최경식·사진)는 1조 1,03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의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030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446억원보다 584억원(5.6%)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1조296억원으로 488억원(5.0%) 증액, 특별회계는 734억원으로 96억원(15.1%)이 증액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경제성장 둔화, 국제·지방세수 감소, 정부의 문화교부세 축소 예정 등 계속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출예산 조정 및 이월·비용 최소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첫째, 사회적 약자계층 보호와 출산·양육환경 조성,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19억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25억원 △남원 인제대학 25억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5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3억원 △일일살롱서비스 사업 3.5억원 △경로당 양극지역 및 공동아이디어 설치 1.3억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둘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관내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영농활동 및 농가소득 보전과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6억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1.1억원 △년별농업영농정책 지원금 5억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3억원 △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1.3억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0.9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0.9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셋째,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복구비 및 재난 사전예방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여건 마련을 위해 △세전지구 배수개선 19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24억원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0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1억원 △하천제방 유지보수 4억원 △지역안전지구 개선(교통안전시설) 5억원 △마을방범경 CCTV 설치 5억원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사대 노방마을) 3억원 △재해위험예방 사업 1.4억원 △요천 하도정비 1억원 등을 편성했다.

넷째, 2025년도 주요 행사 추진 사전 준비 및 시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95회 춘향제 사전준비

22억원 △광한루원 증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 12억원 △남원 레코드 테크 조성 사업 7.6억원 △문라이트파크 조성공사 6억원 △국가유공자 경관개선 사업 2억원 등을 편성했다.

다섯째 하반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재난 및 시책, 현안사업 △항교지구 주차타워 건립 7억원 △내부운 암거교량 설치 5억원 △요천생태습지공원 주출입로 위험도로 개선 6.5억원 △도룡공원 내 화장실 화재 발생 긴급 보수 3억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3건 9.6억원 △교통안전 국민안전교육 3억원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석정마을) 3억원 △운봉읍 가점마을 안길 확장 외 10건 3억원 등을 편성했다.

아울러 2025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설계비 등 반영으로 △소리길 포장 개선 1억원 △광한루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억원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 1억원 △드래곤·관광단지 진입도로 토지 매입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은 8월 26일부터 개최되는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와 의결을 거쳐 9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경제침체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사업과 시민생활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예산을 투입해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남원시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회의실에서 '남원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의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남원시는 현대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효율성, 지속 가능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남원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최경식 시장을 비롯한 부서 관계자, 용역 수행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도시 조성 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논의가 이뤄졌으며, 시는 지역현안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환경과 시민의 전반적인 개선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자료수집·분석, 부서 면담, 시민 리빙랩, 시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디지털 포용 △기후 위기 대응 △정주 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23개의 스마트도시서비스 모델과 이행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25개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은 △남원형 스마트 복지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팜 데이터 통합관리 서비스 고도화 △경로당 기반 건강케어 서비스 고도화 △스마트 관광 플랫폼 고도화 △산모 맞춤형 출산 케어 플랫폼 드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 △스마트 화재 예방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 데이터 취합 플랫폼 구축 서비스 등이며, 앞으로 시는 중간 보고 이후 국토교통부의 컨설팅과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안심버스는 보건복지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정신건강검진 도구가 구비된 버스를 이용하여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뇌파·맥박 분석을 통한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검사와 상담 및 정신 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등록 및 상담, 치료연계,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7월말 기준 65회 운영을 통해 총 83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30건의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센터 등록 및 치료 연계했으며, 지난 2020년 집중호우 수해 피해 지역, 2023년 남원의료원 화재 발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금연구역 확대

임실군이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공공 금연구역을 확대·신설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로 확대되었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군은 금연 구역 확대에 따른 지정표지판 부착, 현수막 게시 등 홍보 기간을 거쳐 이달 17일부터 확대·신설된 금연 구역을 단속할 방침이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대곤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 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 등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감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